

대전 사전투표에 나선 서거석 교육감 부부



서거석 교육감과 배우자 유광수씨(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별관 창조나래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유권자가 된 18세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투표소를 찾아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흡연 예방·금연 실천’

전북교육청, 금연 지지 분위기 조성·자발적인 실천 유도 위해 행사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2층 강당 및 야외 마당에서 흡연예방 금연실천의 날 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직원 대상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금연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북흡연예방교육포럼, 전북금연지원센터(원광대병원) 등과 함께 △직원대표 금연결심 선언 △흡연예방 전시 및 체험 △폐활량 및 산소포화도 측정 △SNS 인증샷 포토존 △헬스·헬당·일산화탄소 측정 △전문 금연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금연 상담 부스와 체험존은 많은 직원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진행됐다. 금연을 희망한 직원 중 일부는 전북금연지원센터(원광대병원) 금연서비스에 등록, 앞으로 6개월간 전문적인 금연관리와 상담을 받았다. 행사 종료 후에는 직원들이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2층 강당 및 야외 마당에서 흡연예방 금연실천의 날 행사를 운영했다.

“똥초깅(담배꽂초 줍기)” 활동을 통해 교육청 주변을 정리했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일일 집중 금연 메시지 전달로 직원들의 금연 의

지를 조성하고, 금연 실천을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며 “금연 실천 문화가 학교 현장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ODA 동아리 13기 활동 마무리

ODA 지역 대학생 인식 확산

전북대학교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백숙희)는 공적개발원조(이하 ODA)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전북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ODA 동아리 13기가 3개월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ODA 동아리는 2017년부터 운영돼 온 전북 지역 대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ODA(공적개발원조) 인식 확산과 핵심 인재 양성이 목적이다. 지금까지 총 241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수료했으며, 이들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 NGO,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개발협력 현장으로 진출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13기는 지난 3월 모집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운영됐다. 학생들은 국



전북대학교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공적개발원조(이하 ODA)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전북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ODA 동아리 13기가 3개월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과 지식 습득을 돕기 위해 주요 이슈 발제 및 토론, 경험 공유회,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교육받았다. 활동 종료 후에는 참여 학생들의 소감과 결과를 담은 자제 매거진도 발간할 예정이다.

8기 수료자이자 13기 실무 담당자인 박민지 실무관은 “ODA 동아리를 통해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었고, 이 경험이 KOICA YP(청년인턴)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비전대, 범한유니솔루션 방문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29일 이차전지 전문기업 범한유니솔루션(주)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범한유니솔루션(주)은 글로벌 리딩 수준의 Cylindrical 전지셀 모듈 및 EV·ESS 배터리 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이날 전주비전대학교 신재생에너지과 재학생 26명과 인솔교수 2명이 함께 방문했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용접 기술과 다양한 배터리 팩 및 모



전주비전대학교가 이차전지 전문기업 범한유니솔루션(주)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듈 생산 공정을 직접 확인하며 실무 지식을 넓혔다. 한 학생은 “ESS 에너지 시스템에 대

해 실제로 보고 배우며 큰 영감을 받았고,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세계 최초 다채널 전자동혈액점도측정기 개발 ‘결실’

전북대 이동한 교수 창업기업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 수상



전북대학교 이동한 교수(공대 기계설계공학부·사진)가 창업한 의료가기 전문기업 (주)바이오리올로지스가 ‘제20회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상은 IT 및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성과 산업적 기여도를 인정받은 기업에 수여된다. 29일 전북대에 따르면 (주)바이오리올로지는 교수벤처 기술창업기업으로, 혈액점도측정기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다채널 전자동혈액점도측정기 ‘RHEOVIS 200’과 ‘RHEOVIS 2000A’를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장비는 하나의 장비로 다수의 혈액 샘플을 자동으로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다채널 스캐닝 방식을 적용해 분석 효율성과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RHEOVIS 시리즈는 1초당 1회(당)에서 1,000회까지 다양한 전단율(shear rate) 범위를 단일 테스트로 구현할 수 있어 혈액의 유동학적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기술은 심혈관계·뇌혈관계·말초혈관계 등 만성질환의 조기진단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생체지표로서 혈액점도에 주목한 결과다.

(주)바이오리올로지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획득했으며, 전자동 혈액점도 검사기용 소형 일회용 키트 및 카트리지에 대한 미국 특허를 등록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동한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의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분석을 돕기 위한 기술 개발에 힘써온 결과를 인정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 기여하는 혁신적 기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평화·공존 지향 교육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평화공존교육 교원 대상 1차 연수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9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컨벤션홀에서 ‘2025년 평화공존교육 교원 역량강화 1차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화, 교실에서 다시 시작하기: 평화통일 교육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연수는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최근 국내외 정세와 평화통일 교육의 과거 흐름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분석을 통해 교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평화통일 교육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의에서는 남북관계와 시민들의 통일 의식과 함께 변화해 온 평화통일 교육 과정을 돌아보고, 미래의 한반도 평화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로는 평화통일 시민단체인 어린이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이성숙 팀장이 참여했다.

분임 강의로 초등은 ‘그림책을 통한 깊이있는 질문으로 평화로운 세상 꿈꾸기’, 중등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을 주제로 수업사례를 공유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과 핵심 쟁점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며 “평화공존교육을 통해 공존과 상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평화시민을 양성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시민으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지난 27~28일 교내 대운동장에서 ‘2025년 1학기 전공탐색박람회’를 개최했다.

신입생 맞춤형 진로 탐색의 장

전북대, 전공탐색박람회… 77개 학과 참여부스 운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27~28일 이틀간 교내 대운동장에서 ‘2025년 1학기 전공탐색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로,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 진로와 전공을 주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틀간 열린 박람회에는 신입생 등 5천여 명이 참가해 전공 선택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총 77개 학과(학부)가 참여해 자율적으로 부스를 운영, 각 부스에서는 교수진과 조교, 재학생 선배들이 직접 전공 소개, 학

과 활동 안내, 진로 및 커리어 상담을 진행하며 신입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전공별 커리어 로드맵 포스터 전시와 졸업생 취업처를 시각화한 롤링페이저 콘텐츠는 학생들에게 각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체험형 이벤트도 마련돼 참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신입생은 “막연했던 전공에 대해 교수님과 선배들에게 직접 설명을 들으며 진로까지 상담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의 대학생 활과 진로 선택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상반기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내달 13일까지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5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10일간 창조나래 5회의실에서 상반기 시민감사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은 전북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상반기 감사에서는 △고충 민원처리 △학력신장 및 진로진학 △마약예방 교육 △극제바칼로레아(B) 프로그램 운영 △학교공감 재구조화 등 총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현장 실사와 심층 조사 등을 통해 각 정책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 결과는 시민감사관협의회 명의로 교육감에게 제출되며, 교육감은 해당 감사 의견서를 검토한 후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는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참여형 청렴 정책을 통해 전북교육 정책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폭심(소)위원 전문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라투체 회의실에서 14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과 지역별 간사 7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로, 교원·학부모·경찰·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연수는 심의위원 전문성 신장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소)위원장의 역할 △학교폭력 및 심의위원회 이해 △행정심판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특히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적절성,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심의위원회 신속 개최 등의 현안에 대한 지역별 의견도 청취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준 심의(소)위원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적이고 긍정적인 조치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경영대학 하림 beSTAR 7기 설명회

전주대학교 경영대학은 지난 28일 자유관 201호에서 ‘하림 beSTAR’ 7기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50여명의 재학생들이 참석해 프로그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참여해 하림그룹 인재상과 요구역량, 융합전공 이수 방법, 현장실습 참여 기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져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영대학 김효진 학장은 “하림 beSTAR 7기는 단순한 취업 연계를 넘어 학생들이 미래 경영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며 “하림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들이 대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